통도사, 화엄세계로 구법여행 떠나다

13일 화엄산림대법회 입재
지안 스님 화엄경 현담부터
1월 10일 회향까지 화엄법석
위패 봉안 · 왕생극락 기원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통도사가 12월 13일부터 1월 10일까지 경내 설법전에서 화엄산림법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화엄산림법회 자료사진.

국내 최대 화엄법석의 장이 한 달 동안 펼쳐진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경내 설법전에서 화엄산림법회를 개최한다.

입재일은 13일 오전 9시 30분이며 입재법문은 前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이 화엄경 현담으로 시작한다. 이후 화엄산림법회는 △12월 14일 세주묘엄품(前 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용학 스님) △12월 15일 여래현상품 · 보현삼매품(前 해인사 강주 원철 스님) △12월 16일 세계성취품 · 화장세계품(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 △12월 17일 비로자나품(前 해인사 강주 수진 스님) △12월 18일 여래명호품 · 사성제품(前 통도사 강주 우진 스님) △12월 19일 광명각품 · 보살문명품(조계종 계단위원 경성스님) △12월 20일 정행품 · 현수품(前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 △12월 21일 승수미정상품 · 수미장상게찬품(前 송광사 강주 도암 스님) △12월 22일 십주품(前 백양사 강주 선행 스님) △12월 23일 범행품(조계종 교육원장 범해 스님) △12월 24일 초발심공덕품 · 명법품(前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12월 25일 불승야마천궁품 · 야마천궁게찬품(前 쌍계사 강주 반산 스님) △12월 26일 십행품 · 십무진장품(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보화 스님) △12월 27일 승도솔천궁품 · 도솔궁중게찬품(통도사 염불원장 영산 스님) △12월 28일 십회향품 1-5(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12월 29일 십회향품 6-10(前 동화사 강주 보윤 스님) △12월 30일 십지품(통도사 백련암 감원 원산 스님) △12월 31일 십정품(부산 화엄사 회주 각성 스님) △1월 1일 십통품 · 십인품 (통도사 강주 인해 스님) △1월 2일 아승지품 · 여래수량품(금강선원 주지 혜거 스님) △1월 3일 제보살주처품 · 불부사의법품(조계종 교육아사리 문광 스님) △1월 4일 여래십신상해품 · 여래수호공덕품(동림선원 주지 신공 스님) △1월 5일 보현행품(울산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 △1월 6일 여래출현품 (동화사 율주 현진 스님) △1월 7일 이세간품(창녕 관룡사 주지 정안 스님) △1월 8일 입법계품 휴사우바니까지(송광사 강주 연각 스님) △1월 9일 입법계품 비목구사~비산비연주야신(마산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 순으로 진행된다. 회향은 1월 10일이며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입법계품과 회향법문을 설한다.

통도사 화엄산림법회는 매년 음력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되는 대규모 법회다. 화엄경에 나오는 선재동자의 구법 원력을 실천하는 전국의 재가불자들이 선사의 법문을 청하는 자리기도 하다. 참여 재가자들은 한 달 동안 통도사 설법전에 영가 위패를 봉안해 영가들이 화엄경 법문을 듣고 극락왕생하도록 기도하며, 통도사는 매주 천도재를 봉행한다.

통도사는 "법문을 통해 우리들 각자가 유루의 법을 버리고 무루의 법을 증득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단절된 한국 채색화, 불교가 계승"

한국화 채색문화 주제로
통도사, 서울서 학술대회



통도사가 12월 2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학술대회.

전통 채색화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줄어들면서 한국 미술계가 처한 위기로 꼽히는 가운데 불교 화승이 한국 채색화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는 12월 2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한국화의 정체성-채색문화의 위상 재정립'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조발제를 한 윤범모 동국대 명예석좌교수는 "미술대학에서 채색화 전공은 소멸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미술대학에서 전통 채색화를 지도할 교수도 없고 또 배우고자 하는 학생도 없을 것이다. 채색 전통의 단절은 가슴 아픈 미술계의 현실"이라 진단했다.

윤 교수는 이어 "민화 작가는 화원계열과 민간 화가로 구분해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비중 있게 봐야 할 화가 집단이 바로 사찰의 화승(畵僧)이다. 사찰은 채색 전통의 단절 없이 계속 전통을 이어왔고 소묘력 등 작가적 기본 소양을 갖춰 다뤘다"고 설명했다. 또 윤 교수는 "조선말기 사찰 경제는 피폐함의 절정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했고 자연스럽게 화승들은 마을로 내려가 오늘날 민화로 불리는 그림을 그려 일용품을 해결했다. 사찰에서 볼 수 있는 불교와 무관한 사찰 벽화 내용은 민화의 직접적인 원류의 하나로 재평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술대회에서는 '민화'의 위상을 재조명하며 명칭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 교수는 "민화라는 용어의 폐기를 본격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한국 회화사의 주류가 채색화라면 한국화라 불려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는 "민화가 한국화로 불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민화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특성이 담긴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한국화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민화의 한국적 정체성(정병모 한국민화학교장) △민화의 개념 · 명칭 · 장르의 문제(윤진영 한국학중앙연구원 수석연구원) △재료기법을 통해 본 한국화의 정체성(정종미 前 고려대 교수) △채색화와 미술시장-채색화는 시장에서 홀대 받았는가(손영옥 국민일보 기자) △비엔나 벨트뮤지엄 소장품 19세기 한국민화(베티나 조른 오스트리아 빈 미술관 큐레이터) △중국 공필화의 정의 및 역사적 전개-채색화조화를 중심으로(배원정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파리국립기메동양박물관 소장 이우환 컬렉션-민화라는 용어의 재고(최옥경 보르도몽테뉴대학 부교수) △한국화의 정체성과 민화박물관의 역할(윤열수 가회민화박물관 관장)이 발표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사상경찰서 기도도량 문 열어

사상구경승실 법당 5층에 개원…비로자나불 점안



부산 사상경찰서 경승실(경승실장 성문)은 12월 4일 경찰서 내 5층에서 '사상경찰서 법당 개원 및 비로자나불 점안식'을 봉행했다.〈사진〉 경승실은 법당을 개원하며 비로자나부처님의 광명으로 시민의 안전과 경찰의 안위를 기도했다. 경승실은 매월 정기법회를 봉행하며 경찰의 기도 공간으로 활용한다.

법회에는 사상경찰서 경승실장 성문 스님, 총무국장 법경 스님, 경승위원 자륜 · 은적 · 향공 스님을 비롯해 강용창 부산경찰불자회장, 송재린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장, 정분남 부산여성불자회장, 엄정운 사상경찰서장, 장제원 국회의원, 조병길 사상구청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성문 스님은 "사상구와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경찰에게 비로자나부처님의 광명이 비추듯 가피가 함께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엄정운 사상경찰서장은 "사상경찰서에 모신 부처님 광명이 경찰과 시민에게 전해져 공덕이 무량할 것"이라고 인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천태종 광명사, 김장 1000포기 나눔

부산 금정구불교연합회 등 100여 명 함께 힘 보태



천태종 부산 광명사(주지 춘광)는 11월 30일 경내 대중공양실에서 '광명사 자비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자비나눔에는 주지 춘광 스님을 비롯해 금정구불교연합회 부회장 법일 스님, 혜공 스님, 지훈 스님, 지광 스님, 김재윤 금정구청장, 최봉환 금정구의회 의장 등 100여 명이 동참해 배추 1000포기를 김장했다.

춘광 스님은 "오늘 마련한 김장김치로 소외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이웃을 위해 자비나눔을 해주시는 광명사 주지스님과 신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사는 동지를 맞아 이웃과 함께하는 동지팥죽공양도 실시한다. 팥죽나눔은 12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온천동(홈플러스 맞은편) 거리에서 진행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적극적인 후원 · 봉사에 감사"

12월 1일, UN평화기념관 컨벤션홀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대표이사 지원)이 12월 1일 UN평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2023년 자원봉사자 · 후원자 감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문수복지재단은 행사에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한 해 동안 펼쳐준 활동과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표이사 지원 스님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분들이 힘든 와중에도 끊임없이 법인과 산하기관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자원봉사와 후원은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 문수복지재단과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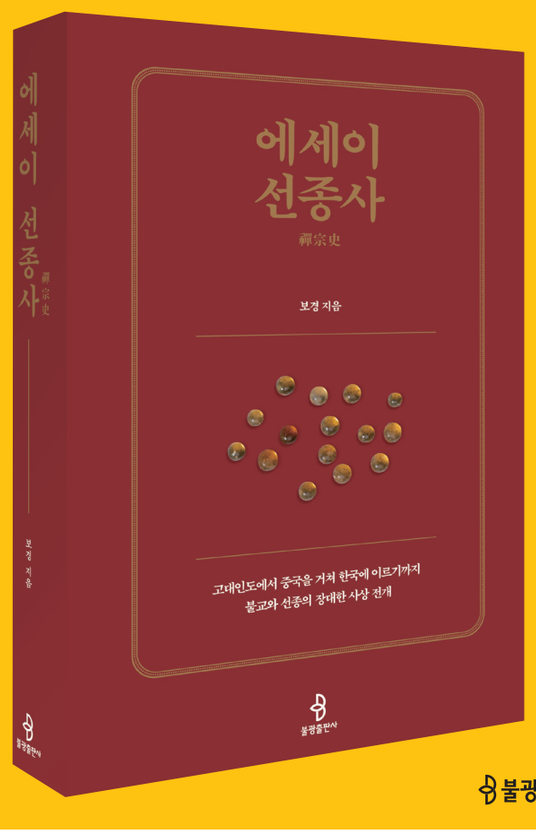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자원봉사자 후원자 감사의 날 행사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발전에 기여한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선(禪)을 알면 불교가 선명해지고 불교를 알면 삶이 만만해진다!

최고의 에세이스트 보경 스님이 쓴
선(禪) 공부할 때 알아야 할 모든 것!

인도 → 중국 → 한국으로 이어지는
3,000년의 붓다 로드(BUDDHA-ROAD)

"만약 책 한 권으로 불교와 선종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이
가능할 수만 있다면 불교와 선종의 공부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좋은 일이기도 하고,
이는 나의 오랜 갈망이기도 하다."
- 저자의 말



고대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에 이르기까지
불교와 선종의 장대한 사상 전개

에세이 선종사
禪宗史

보경 지음 | 양장본
504쪽 | 30,000원

고대인도 사상
베다
우파니샤드
불교

인도불교 철학
아비달마
중관
유식
인명론
여래장
밀교

중국의 불교
문화사
역경사
불성사
선종사

출가 후 40년,
촘촘한 안목과 노련한 글 솜씨로
선의 지도를 그리다

한국의 불교
조계산문
정혜결사
무자화두
『선문염송』과 간화선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